

“새싹불자를 키우자”

신년특집

선재들 눈빛 초롱초롱 신심·활기 넘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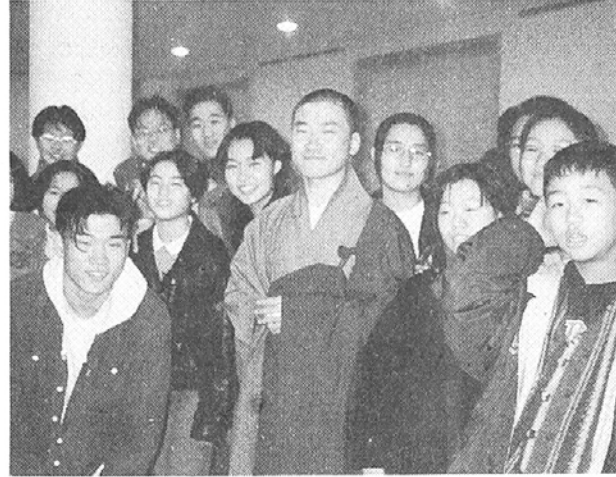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3시30분, 서울 법륜사 (주지 현호스님) 2층 법당이 청소년 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불일학생회 정기법회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 시험이 한창이던 구랍 16일 토요일에도 중1부터 고3에 이르는 4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법륜사 부처님앞에 모여 들었다. “뚝뚝뚝뜨르르르...”

불일학생회 회장 신현철군이 법회를 알리는 목탁을 치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목탁소리에 맞춰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외었다. 불일학생회법회는 학생이 직접 법회집전을 하는 자율법회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79년 고등부 법회를 시작으로 81년 중등부 법회가 창립되었고, 지금은 중·고등부가 함께 법회를 보여 신생활을 해오고 있다.

법회탐방
법륜사 불일학생회

“이번주엔 왜 그냥갔나?”
“방학때는 뭐 할거야?”
“시험은 어땠어?”
“너도 피자 좋아하나?”
은좌법회는 일주일만에 만난 남녀 학생들이 서로의 일상생활에 대해 돌



◇ 지도법사 석우스님을 둘러싼 법륜사 불일학생회 회원들의 밝은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인기있는 ‘윤좌법회’ 돈독한 법우에 심어

불일학생회는 매년 초파일이면 대형 탐모형을 직접 만들어 제등행렬의 맨 선두를 이끌기도 하고, 참선 108배와 각종 수련법회로 흐트러진 신심을 다지기도 한다. 또 한달에 1번 사물 다루는 법도 함께 배운다. 오늘은 ‘윤좌법회’가 있는 날. 40여명의 학생들이 서로 마주보며 길게 앉았다.

아카며 대화를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시간이다.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윤좌법회시간이 참 좋습니 다”라고 말하는 강성운군(재천고 2년)은 이 시간에 외로운 오빠가 되기도 하고 귀여운 동생이 되기도 한다. 불일학생회는 구랍 24일~27일 공주

명지장사로 겨울불교학교를 다녀왔다. ‘단합’이라는 주제로 대중생활, 공동체적인 삶의 참 뜻을 익히기 위해 김밥운력, 사경, 108배 정진등의 수련도 하고 백일장, 캠프아이디어를 즐겨온 시간도 가졌다. 불일학생회 지도법사 석우스님은 “아직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흥미위

주로 잘에 나옵니다. 96년도에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신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회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법륜사 불일학생회는 오는 2월에 고3학생들의 졸업 축하하고 중1 신입생을 맞이하는 졸업법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더욱 튼실한 96년의 활동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 연말결산 왕중왕전에서 우승했다.

동아리 순례 **건국대 불교학생회**

황소개워 연꽃세계로 간다

‘정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건국대 불교학생회는 부처님의 마음이 솟아고 있습니다.’ 건국대 학생회관 5층에 자리잡은 무량광전은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이곳에서 본 일감호와 와우도가 동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처럼 동심 떠났다. 환혼 무량 일감호에 살포시 누워있는 와우를 보노라면 서방정토가 그리워진다고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건국대는 황소가 학교의 상징, 씩씩한 황소의 모습은 화엄경에 나오는 심우도를 연상시킨다. 매일 황소를 대하여선지 이들의 모습은 깨달음을 향하여가는 선재동자처럼 진지하다. 32년차를 맞고 있는 건대불교학생회(회장 최중용 법학2년)는 불교공부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않는 튼튼하고 발랄한 젊은 불자들이다. 구랍 22일에 있었던 불교TV ‘퀴즈특급 이뤘꼬?’ 연말결산에서 중앙대 불교학생회를 물리치고 왕중왕전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32년 전통...강연·공연등 신형열정 ‘활활’ 동문회서 수행도량 무우사 창건 자랑

모이던 불교계 현안이나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문제까지 갖가지 불교문제를 주제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결론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자’가 답이 된다. 건대불교학생회의 특색은 창립기념법회에서도 드러난다. 연극과 노래공연이 주를 이루는 여느 학교와 달리 능인선원 지광스님을 초청하여 ‘법우여 그대는 불교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불교는 광명이고 빛이다’라는 확신을 학우와 불자들에게 심어주어 교내 호응을 받은 것. 이와함께 2개월간 전회원이 바라춤을 배워 공연한 것도 빅 이슈. 흥가사와 장삼을 직접 만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경을 염하며 전수바라를 공연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다고. 신생활도 열심이다. 아침 8시엔 지도교수인 이준 교수(공업화학과)의 집전으로 아침예불을 함께 하고 저녁에는 회장의 집전으로 예불을 모셔, 아름다운 건국대 교정에는 일감호에 누워있는 황소를 개워 소를 타고 깨달음의 길을 떠나려는 젊은 불자들의 불타는 신심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경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건대불교학생회는 동문모임인 청심회의 지원으로 수행도량 무우사를 창건한 것도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회장 최중용군은 “신앙의 감소로 어려움이 많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단체의 틀을 잡아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내년 계획을 밝힌다.

김원우 기자

우리절 X세대 스타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유성아 양

춤 노래 교리 자신 '끼' 있는 포교사

2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활이지만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법우 모두가 추천하는 우리절 X세대 스타 유성아(중앙여고 2)양. 유양을 처음 대하는 이들은 유선 유양의 차분하고 환한 웃음에 친숙함부터 느낀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유양은 “지금은 워낙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앞에 나서서 말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 워튼지요”라고 말할 만큼 모든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탈바꿈했다. 고3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아는 그래서 시간 틈틈이 서점을 찾는다. 학생회에서 미진했던 교리공부를 불교서적을 통해 익히기 위해서다. 책에서 익힌 내용, 학생회에서 느낀 내용들을 가능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얘기한다. 맨투맨 포교를 하는 셈이다.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 못지 않게 책으로 내실을 다지며 자신과 포교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유성아양은 단연 조계사 중고등학생회에서 돋보이는 스타이다. (도필선 기자)

한양대 불교학생회
김민규 군

시험때도 법회 빠지지 않는 '골수'

살을 에는 매서운 추위로 X세대 불자들에게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큰소리를 친다. 한미음선원 앞마당에서 96년 새해달력을 팔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민규(안양공고 1년)군도 웅글한 X세대 청소년 불자들이다. 환한 얼굴로 달력을 팔고 있는 김민규군은 매주 일요일마다 커피관매, 달력관매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과중한 학업에 쫓기다 보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면 으레히 법회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김민규군은 아직까지 한번도 시험 때문에 법회에 불참한 적이 없다. “선원에 나와서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고 은은한 한내음이 몸에 배어아 공부도 더 잘되고, 시험에도 편한 마음으로 임하게 돼요.” 김민규군의 말이다.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속에서 충실한 불자의 삶을 펼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김민규군의 생활신조다. (이은자 기자)

천안 천안불교학생회
김효진 양

법회서 피아노 반주 사랑 독차지

삼귀의 피아노 반주가 계속되는데도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모두가 선녀의 옷자락처럼 나부끼는 효진의 손가락 끝에 정신이 팔려있다. 천안시 연대선원 중·고등부법회에서 으뜸 스타는 단연 김효진(천안여중 2)양. 예쁘장한 얼굴에, 멋진 피아노 연주 솜씨로 법회에 나오는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북 뛰는 스타가 아닌 수줍음 많은 요즘 보기드문 아이(?)라서 그런지 학생 법우들도 효진을 모두 좋아한다. 최고수준의 인기관리가 선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불법과 인연을 맺은 효진은 불교를 접고부터 자신이 보다 너그러워진 것 같다고 뽐냈었다. 앞으로는 공부도, 피아노도, 불법도 더 열심히 배워 ‘반짝스타’가 아닌 영원한 스타가 되고 싶다는 효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슈베르트 소나타속에서 멋진 새해를 꿈꾼다. (한명우 기자)

건국대 불교학생회
이은희 양

寺報에 글발 날리는 '문학소녀'

일요일마다 서울 종로구 선학원 중앙선원 중·고등부법회에 참석하는 이은희(덕성여중 2)양은 학생회에서 불심이 깊고 항상 상냥해서 인기가 높다. 이은희양은 친구들과 언니·동생들에게 ‘문학소녀’로 알려져 있다. 학생회 회보에 수필을 쓰거나 편집을 도와주면서 글씨를 인정받은 은희는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교내 독후감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또 중1 때는 ‘공상과학 이야기’로 과학상을 받아 재능을 뽐냈다. 불교계 신문기자나 국어선생님을 꿈꾸는 소박한 이양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불심이 강해 원주 천종스님이나 친구들에게 모범학생으로 손꼽힌다. 선원의 학생회 모집공고를 보고 스스로 절에 나오기 시작한 이양은 선원 수련회는 물론 법회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성 불자이다. (김재경 기자)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땅은 곳마다 부처님 땅 도리게 하소서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복원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

교수 일동
임직원 일동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전화: 02-260-3114 (안내)

학교법인 **승가학원**

재단 이사장 송월주

중앙승가대학

학장 임송산

교수 일동
임직원 일동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전화: 925-5507-9

(사) 한국불교대원회
대원불교대학

삼가 법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비나이다.

이사장 박윤훈
학장 허성구
법사단장 오경환
동문회장 안진수

계학생
29기 회장 이복승
30기 회장 임명성
31기 회장 박재근
32기 회장 김윤주

주소: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756-7258